

제2회

한일(韓日)국제환경상(賞) 서울 시상식

숨은 환경파수군 양운진(한국)씨- 히시다 카즈오(일본)씨 영광

지구의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의 「환경인」을 발굴해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한-일 국제환경상』의 제2회 시상식이 10월 23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됐다.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毎日新聞社)가 공동 주관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상자인 한국의 양운진씨(47. 경남대 환경보호학과 교수·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와 일본의 히시다 카즈오씨(69. 해외경제협력기금 기술고문)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고이케 타다오 마이니치신문 사장으로 부터 각각 상패와 상금 1만달러씩을 받았다.

양교수는 지난 5년간 낙동강과 수질 개선과 주변 습지의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양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추진력으로 하는 소비제 일주위의 산업사회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종말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면서 “아시아를 위한 활동을 아시아인들 앞에서 평가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계 환경위기 고조... 아시아사 단합-연대 확인

조선일보 방(方)사장은 인사말에서 “GNP(국민총생산)가 곧 국민들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경제지상주의적 사고방식이 자연의 파괴와 인간관계의 상실, 정신적 행복의 결핍을 낳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참된 행복이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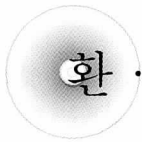
마이니치신문 고이케 사장은 “97년 2월 마이니치신문의 창간 1백 25주년을 기념해 세계의 지식인이 참여하는 「위기 경고 위원회」를 창설할 예정”이라면서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를 겸허하게 경청하자”고 말했다.



시상식 후 리셉션 자리에서 안병훈
조선일보 전무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경제성장 속도를 통제하자는 움직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마찰이 예상된
다”면서 “장래에 대두하게 될 어려움에
미리 대비해 두자”고 말했다.

조선일보사와 마이니치신문사는 양사
제휴 3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한·일 국
제환경상을 제정했으며, 제1회 시상식
은 '95년 10월 26일 도쿄 프레스센터에
서 있었다.

1996. 10. 24 조선일보



환 · 경 · 마 · 크 · 상 · 품

자원재생제품 ‘질(質)에 비해 비싸 다고’ 인식, 안팔려...

환경마크가 붙은 상품 판매가 부진해
생산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환경마크상품이란 생산·소비과정에
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상품으로, 환
경마크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엄
격한 심사를 통해 지난 94년부터 선정
해 왔다. 12월 3일 환경마크협회에 따
르면 지난해 환경마크상품으로 인증받
은 1백40개제품(87개사) 중 49개 제품
(32개사-재생지로 만든 공책, 폐식용유
를 이용해 만든 세탁비누, 표백제를 안
쓴 내의, 절수용 수도꼭지와 양변기, 갈
아끼우는 칫솔, 무기성 폐재를 활용한
건축자재류 등)은 이미 생산이 중단됐
거나 매출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시장에
서 자취를 감췄다.

환경마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
수의 환경마크상품이 「싸구려」로 인식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가 하
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한다.

환경마크상품은 3일 현재 모두 1백
34개사의 1백 78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
다.

환경마크상품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
에서는 환경마크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마크
상품제도가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6. 12. 3. 문화일보